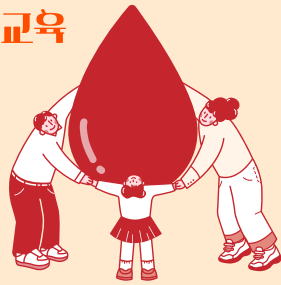


만 17~69세
가능

헌혈에 대해 알아볼까요?



일시: 2024.7.8.(화) 5교시

헌혈이란

혈액성분 중 한가지 이상이 부족하여 생명에 위협을 받는 사람을 위해 건강한 사람이 대가 없이 자유의사로 자신의 혈액을 기증하는 행동

헌혈이 필요한 이유

- ✓ **생명을 구하는 유일한 수단**
 - 혈액은 인공적으로 만들거나 대체불가
 - 수혈이 필요한 환자의 생명을 구하는 유일한 수단
 - 고귀한 장기이식의 한 부분

- ✓ **혈액의 상업적 유통 법적 규제**
 - 인류의 공동윤리에 기반하여 혈액의 상업적 유통 금지

- ✓ **혈액의 장기보존 어려움**
 - 혈액은 살아있는 세포로 구성되어 장기간 보존이 어려움

헌혈한 혈액은 어디로 갈까?

01



안전한 혈액 보관

02



혈액 성분제제별로 요청

03



의료기관으로
출고 및 운송

04



수혈전 적합검사 후
수여자에게 제공

혈액의 역할



- 산소와 영양분 노폐물을 운반
- 백혈구와 항체 등을 통해 세균 감염 등의 질병으로부터 보호

→ **혈액이 부족하면 생명을 잃을 수 있어요**

헌혈시 받는 혈액검사 종류

- 01 혈액형 검사, 혈액형 아형검사
- 02 비예기항체 선별검사
- 03 B형 간염항원검사
- 04 C형 간염, 매독 항체검사
- 05 ALT검사, 총단백, 핵산 증폭 검사
- 06 HTLV 검사

혈액성분제제 종류

01 전혈

- 혈액의 모든성분(적혈구, 백혈구, 혈소판, 혈장)
- 소요시간: 10~15분
- 연5회까지 헌혈 가능
- 어떤 환자에게 가나요?
-> 총 혈액량의 25% 이상 소실 환자

02 적혈구제제

- 종류 : 농축적혈구, 백혈구제거적혈구
- 어떤환자에게 가나요? -> 빈혈환자

03 혈소판제제

- 어떤환자에게 가나요? -> 혈소판 감소환자

04 혈장제제

- 어떤환자에게 가나요? -> 혈액성질환환자
ex) 혈우병, DIC, 중증 간질환자 등

헌혈에 대한 오해와 진실

01 헌혈증서는 구입할 수 있다



-> 헌혈증서를 매매하는 행위는 불법

02 헌혈을 하면 건강에 나쁘다



-> 헌혈 후 1~2일이 지나면 체내 혈액 순환은 회복

03 헌혈하면 살이 빠진다



-> 신체 보상작용으로 체액이 보충되어 체중감소 없다

04 적십자에서 피장사를 한다



-> 헌혈증서를 매매하는 행위는 불법